각자 자리서 당당하게 빛나기를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㊳ '남남'(2023)



드라마 '남남'은 헤어지면 남이 되는 부부와 달리 결코 남이 될 수 없는 부모 자식 간의 깊은 인연을 철부지 엄마와 어른스러운 딸의 이야기로 그린 작품이다.
사진 출처=ENA 공식 유튜브 동영상 캡처

천륜으로 이루어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각별한 것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만 최근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특별한 예를 본다. 바로 어머니와 일상을 함께하는 딸이 늘어나는 현상이다. SNS에서는 이것을 '엄미새'(엄마에게 미친 사람)라고 표현하며 자랑스럽게 내세우기도 한다. 반면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부모에게서 찾는 것이 한 원인이라며 이성을 찾아 연애하는 것보다 엄마와의 교감을 더 원하는 현실이 걱정스럽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체로 엄마와 딸의 관계는 아빠와 아들의 관계보다는 친근한 편이다. 아빠와 아들이 여행을 가는 일은 보기 힘들어도 엄마와 여행하는 딸은 흔하다. 아빠와 아들이 함께 쇼핑하는 모습은 어색해 보여도 엄마 손을 잡고 상점가를 다니는 딸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정해 보인다. 그래서 오늘은 엄마와 딸을 소재로 한 드라마 '남남'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월산경찰서 경무인사계 주임으로 근무하던 김진희(배우 최수영) 경위는 경찰서의 낙하산 인사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자 여론 무마용으로 억울하게 징계를 받고 남촌파출소로 좌천된다. 그런데 하필 남촌파출소는 거침없는 진희의 말투 때문에 경찰 초임 시절 악연이 있는 경찰대 선배 은재원(배우 박성훈) 경감이 소장으로 있는 곳이다. 게다가 첫날부터 진희를 적대시하는 파출소 동료들의 태도에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하기만 하다.

정형외과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진희의 엄마 김은미(배우 전혜진)는 동안인 데다 딸과는 워낙 스스럼없이 지내다 보니 종종 사람들이 둘을 자매로 착각하곤 한다. 여기에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는데, 바로 은미가 고등학생 때 진희를 낳아서 둘의 나이 차이가 스무 살이 채 안 된다는 점이다.

소싯적 '좀 노는' 학생이었던 은미는 친구 오빠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어른들이 보기에는 한낱 아이들의 불장난일 뿐. 남자 집안은 남자를 전학시키기로 했고 친구는 순진한 자기 오빠를 꾀었다며 패거리를 몰고 와 폭력을 행사했다. 상처투성이가 되어 남자를 만난 은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른의 사랑을 하고 헤어졌다.

드라마 '남남'은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젊은 남자만 보면 저절로 고개가 돌아가고, 딸에게 클럽에 가자고 조르는 거침없고 철없는 엄마 은미와, 그런 은미의 보호자이자 집사, 남편이자 애인 역할을 해내며 살아가는 딸 진희의 이야기다. 자매 같은 모녀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리면서도 미혼모라는 묵직한 소재를 꺼내며 '엄마와 딸'의 의미를 묻는다.

스무 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고등학교 친구인 김미정(배우 김혜은)과 미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낳은 은미는, 미혼모가 정상적인 '어머니' 노릇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에 아랑곳없이 타고난 엄마의 기질을 발휘하면서 지금까지 진희를 키웠다. 그런 은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드라마 초반에 등장한다.

밤늦게 진희가 골목길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 손을 잡은 여자가 뛰어오는가 싶더니 곧이어 "유괴범을 잡아 달라"는 소리가 들린다. 진희는 발을 걸어 유괴범을 넘어뜨려 아이를 구해내고 경찰에 신고하는데, 그사이에 뒤쫓아온 아이 엄마가 넘어진 유괴범을 빗자루로 마구 때린다. 보다 못한 진희가 빗자루를 뺏자 흥분한 아이 엄마는 진희를 한패로 몰며 공격한다.

이때 나타난 은미는 여자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네가 뭔데 감히 내 딸을 때려?"라며 일갈을 한다. 진희는 아이가 유괴당해서 그런 거라며 은미를 말리지만, 여전히 머리채를 놓지 않는 은미의 말.

"세상 어떤 어미가 애는 나 몰라라 하고 유괴범부터 족치냐? 애가 위험하든 말든 상관도 안 하고. 그게 어미야?"

사실은 아이를 유괴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철없는 엄마 은미와 어른스러운 딸 진희
미혼모 이야기로 엄마와 딸의 의미 물어
결코 남이 될 수 없는 부모 자식 간 인연
관계에 애착 말고 각자의 삶서 홀로서길



드라마 '남남' 포스터. 사진 출처=ENA

사가 학대받는 아이를 구출했던 것. 그 짧은 순간에 은미는 엄마라면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아이 엄마의 실체를 파악한 것이다.

시간이 흘러, 우여곡절 끝에 남촌파출소 사람들과 한마음이 되어 관내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해결하던 진희는 살인 사건을 쫓던 중 스토커처럼 은미를 따라다니는 남자를 붙잡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자는 스토커가 아닌 진희의 친부 박진홍(배우 안재욱). 은미가 일하는 병원 원장이 진홍의 선배 의사여서 우연히 병원을 찾은 진홍이 30년 만에 은미를 만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딸이 있음을 알고, 다시 만나자며 은미를 쫓아다닌 것이었다.

30년이라는 세월에도 서로를 잊지 못했던 은미와 진홍은 결혼을 생각하기에 이르고, 진희까지 함께 진홍의 부모를 만난다. 예나 지금이나 안하무인인 진홍의 부모는 처음 만난 진희에게 유학을 권하며 의사나 교수가 되라고 한다.

진희가 선택한 경찰이란 직업을 존중해 달라는 진홍의 말에도 "머리 좋은 아이를 돈이 없어서 제대로 공부시키지 못했다"면서 은미를 무시하는 발언을 내뱉는 부모들. 결국 참다 못한 은미는 "내 딸, 아저씨 아줌마 손녀로 못 준다"고 선언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 "애 숨 막혀 죽이기 딱 좋은 양반들"이라면서 진홍과의 결혼마저 포기한 것.

자신들이 대단히 훌륭한 부모인 척하지만, 진홍의 부모는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강요하며 아들의 첫사랑을 무참히 짓밟았고, 그 결과 쉰을 넘긴 나이에도 독신으로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만든 장본인들이다. 그런 이들이 미혼모라는 약점을 안고도 씩씩하게 진희를 키워낸 은미에게 부모 노릇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셈.

진희의 친부인 진홍조차도 진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은미의 딸'이라고 한다. 자신은 딸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고 진희는 온전히 은미가 키웠다는 의미를 담아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혈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서로에 대해 사랑과 헌신으로 지켜온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드라마는 은미의 친구인 김미정(배우 김혜은)과 미정의 어머니 금순(배우 이덕희)을 비중 있게 보여준다. 고등학교 시절 미정은 은미의 집으로 쳐들어가, 임신한 채로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던 은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지극정성으로 은미와 진희를 돌보았다. 심지어 금순은 호적에 은미와 진희를 딸과 손녀로 올려두었다. 이처럼 남을 내 가족처럼 아꼈던 미정과 금순의 마음은 임신한 여고생 가을(배우 김세원)을 보살피는 은미와 진희에게 고스란히 이어진다.

철부지 엄마 은미와 쿨한 딸 진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얽히고설킨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남남'은 '남이 되고 싶지만… 남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줄인 말이다. 수많은 생의 인연으로 만난다는 부부도 헤어지면 남이 되지만, 부모와 자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이 될 수 없다. 그러니 부모와 자식이 맺어온 인연의 깊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관계조차도 결코 애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애착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니, 애착을 떠난 자는 근심도 두려움도 없다"(〈법구경〉)라는 말씀처럼 불교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고 내 뜻대로 구속하려는 마음 또한 '고통의 원인'일 뿐이다.

세상 무엇도 '내 것'이라 할 것이 없으니 자식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진홍의 부모처럼 내가 낳았다고 해서 자식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다. 반대로 성인이 되어서도, 심지어 결혼을 하고도, 부모에게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의지하면서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불교적으로 본다면 부모와 자식은 '남이 되고 싶지만… 남이 될 수 없는 우리'가 아닌, '남이 될 수 없지만… 남처럼 살 줄 아는 우리'를 줄인 '남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의 소중한 자녀들이, 내 소중한 부모가 각자의 자리에서 당당하고 완전한 개체로 빛날 수 있도록.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서, 혼자만의 세계 일주 배낭여행을 떠나는 진희와 그런 딸의 독립을 섭섭해하면서도 진심으로 응원하며 자신만의 순례길을 떠나는 은미의 모습처럼 말이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